

# “캠퍼스에서 수행자로 생활하니 힘드네요”

하버드가제트,  
하버드신학대 재학 스님 조명

수행자이지만,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 캠퍼스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스님들이 있다.

《Harvard Gazette》지는 3월 23일 하버드신학대(Harvard Divinity School)에 재학 중인 스님 5명을 조명하고, “‘고요’와 ‘평화’의 결정체로 여겨지는 스님들이지만, 그들 모두 대학을 찾게 된 남다른 서원이 있고 캠퍼스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들만의 노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Harvard Gazette》지가 조명받은 이들은 반테 쿠사라(Bhante Kusala, 스리랑카), 우파리 스레만(Upali Sraman, 방글라데시), 장 간 시(Chang Gan Shi, 중국), 이스워 스투스타(Ishwor Shrestha, 네팔), 썬엔 잉(Seng Yen Yeap, 홍콩) 스님 등이다. “불교 수행자는 하버드 캠퍼스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존재”라고 설명한 반테 쿠사라 스님은 “대학이라는 특성상 동급생들과의 교류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스님마다 원칙이 있는 것 같다”며 “서로에게 편안한 소통 방법을 찾는 게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쿠사라 스님에 따르면, 스리랑카 스님들은 신체적 접촉에 민감하다. 심지어 악수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는 동급생들은 우정을 표하는 방법으로 악수는 물론 포옹을 특히 선호한다. 이 문제는 쿠사라 스님에게 캠퍼스에서 첫 학기를 보내는 동안 ‘화두 아닌 화두’가 됐다.

“한 학기 내내 동급생들에게 스리랑카 스님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노력했다”는 쿠사라 스님은 “그 노력과 또 동급생들의 이해로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캠퍼스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파리 스레만(Upali Sraman, 방글라데시, 사진 왼쪽)과 반테 쿠사라(Bhante Kusala, 스리랑카, 사진 가운데) 스님이 동급생 카트리나 피터슨(Katrina Peterson)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장 간 시(Chang Gan Shi, 중국) 스님. 스님은 하버드신학대에서 유일한 비구니 스님이다.

스리랑카·홍콩·중국 출신 스님  
‘완벽한 인격체’ 선입견 힘들어  
피자 먹으며 학생과 교류할 때 행복  
성숙 경계서 자신의 위치 바로 세워

방글라데시 유학파인 우파리 스레만 스님 역시 적잖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 스레만 스님의 어려움은 동급생들의 ‘선입견’이었다. 이는 다른 아닌 ‘수행자는 완벽한 인격체’라는 선입견이었다.

스레만 스님은 “수행자로서 매일 입었던 가사가 학생들의 이목을 잡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캠퍼스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행자의 모습을 본 동급생 대부분 ‘완전한 인격체’의 기대감을 키웠고, 이로 인해 내 캠퍼스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스레만 스님에 따르면, 처음에는 동급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다보니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도 했다. 결국 스님은 ‘가사는 웃일 뿐, 그 안에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

이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길을 택했다. “단지 가사를 입었을 뿐, 스님도 한 인간”이라는 스레만 스님은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 수행자로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한결 편해졌다”며 “이는 성숙을 벗어나지 않는 수행자로서의 삶에 진일보의 계기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장 간 시 스님 역시 스레만 스님의 말에 동의했다. “대학 공부는 그룹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전제할 시 스님은 “그러나 비구니에게 그룹 스터디를 제안하는 동급생은 전무했다”며 “이곳에서의 첫 학기는 공부면 공부 여가면 여가 모두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시 스님은 하버드신학대에서 유일한 비구니 스님이다.

“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즈 피자 콜라”라고 말한 시 스님은 “그 음식이 동급생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단초가 됐다”며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나누는 동안 나와 동급생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었고, 이제는 수행자로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동급생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썬엔 잉 스님은 “스님이 캠퍼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의 ‘선입견’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 스님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스님에 대해 ‘고요’, ‘평화’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스님을 만날 때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나?’ 등의 고민을 하게 마련인데, 바로 이 점이 유학파 스님들의 캠퍼스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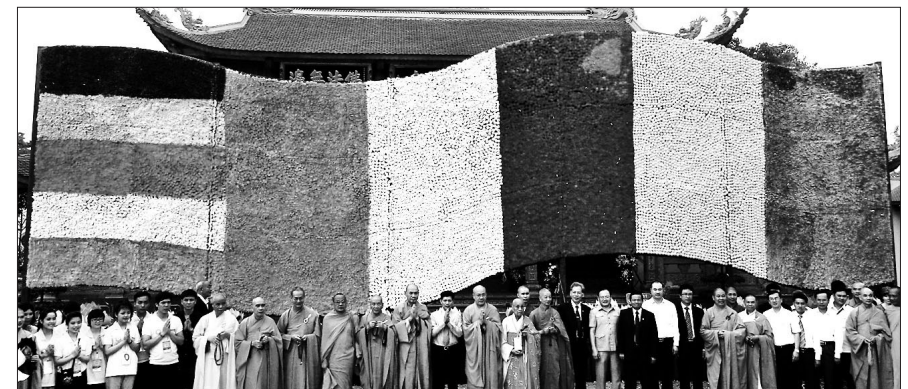
이스워 스투스타 스님 역시 이 점에 공감하고, “하버드신학대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모두 자신만의 서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 과정을 마쳐야 한다”며 “캠퍼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학문의 여정에 올곧게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rvard Gazette》지는 “배가 고플 때, 그 굶주림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음식(양편)”이라는 스투스타 스님의 말을 인용, “스님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만의 음식(양편)으로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주변 동급생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수행자로서 학생으로서 풍요로운 캠퍼스 생활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베트남, 세계 최대 불교기 선보여

15m×4m... 생화 25만여 송이 사용



세계기록연합(World Records Union)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계가 지난 3월 23일 공개한 ‘생화 불교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기로 공인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기(旗)는 어떤 것일까?

세계기록연합(World Records Union)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계가 지난 3월 23일 공개한 ‘생화 불교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기로 공인됐다.

《TUOI TRE NEWS》지는 “베트남 북쪽 지역인 닌빈(Ninh Binh)의 김 손(Kim Son)에 있는 김 리엔(Kim Lien) 사원이 생화(生花)를 이용, 가로 15m 세로 4m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생화 불교기는 김 리엔 사원의 주지 톱 락(Thich Tho Lac) 스님의 제안으로 제작됐다. 톱 락 스님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대회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생화 불교기’ 제작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베트남 불교계가 대거 참여한 것이다.

《TUOI TRE NEWS》지에 따르면, 생화 불교기 제작에는 20명의 플로리스트와 108명의 자원봉사자가 20일간 참여했고, 다섯 개 대륙의 불교계를 상징하는 각양각색의 꽃 255,800 송이가 사용됐다. 생화 불교기에 사용된 꽃송이 무게만 6톤에 이른다.

톱 락 스님은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일불제자라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됐다”며 “생화 불교기가 베트남은 물론 세계 각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중국, 헝가리에 ‘미라 등신불’ 반환요구

헝가리 “네덜란드 드렌츠 박물관에 반환”



헝가리에서 미라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 나온 미라 등신불이 중국에서 도난된 문화재라며 반환하라고 중국이 요구했다.

헝가리에서 미라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 나온 미라 등신불이 중국에서 도난된 문화재라며 반환하라고 중국이 요구했다.

이 불상은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자연사 박물관이 네덜란드 개인 소장가의 작품을 빌려와 전시한 것으로 12세기 때 입적한 수도승에 금박을 입혀 만든 등신불인 것으로 X선 촬영결과 나타났다. 중국 언론들은 3월 23일 중국 푸젠성(福建省) 유물관리국 대변인은 “부다페스트

에서 전시했던 등신불이 양춘(陽春)시의 한 절에 있던 것이 틀림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불상은 그간 많은 주민이 찾아와 소원을 빌던 명물이었으나 지난 1995년 사라져 도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헝가리 자연사박물관은 전시가 끝나 이 불상을 빌려준 네덜란드 드렌츠 박물관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 2천년 이상된 열반상 파키스탄서 발견

높이 15m...이중광배 형식 이례적

파키스탄에서 거대한 석가모니의 열반상이 발견돼 학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열반상은 약 15m 높이의 간다라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큰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광배가 두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파키스탄 고대 도시유적 탁실라(Taxila) 지방 바말라(Bhamala)에서 발견됐다. 바말라는 거대한 불탑이 있는 불교유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바말라 유적 발굴은 미국과 현지발굴팀

에 의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광배 열반상은 머리와 팔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감실에서 발견됐다. 이와 함께 510개의 유물들도 함께 출토됐다. 테라코타상, 진흙으로 빚어진 불두, 철기류, 구리 공예품, 쿠산왕조 시대(BC20~AD5C)에 통용됐던 주화 등이다.

유물은 탄소연대측정 결과 2천년 이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굴팀장 압둘 사마드 박사는 “열반상

은 간다라 문명권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이번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열반상은 동쪽을 바라보며 바말라 유적지의 북서쪽에 놓여있었다. 칸규르 석으로 조성됐으며 다리는 천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전했다. 안타까운 건 석상의 왼쪽 다리와 팔 일부가 떨어져나갔고 머리는 없어진 상태다. 사마드 박사는 불법도굴꾼에 의해 손상이 가해진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진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파키스탄에서 2천년 이상된 열반상이 발견됐다.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삶은 고통이 아니다

10,000원 A5 / 287쪽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 삶은 고통이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르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수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금강경(독송문)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천수경(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